

시멘트 業界 지원 새마을 시범취락을 찾아

변모해 가는 柳防里

편집자 주

“80年代 理想農村을 70年代로 앞당겨 建設하자”는 슬로건 아래 洋灰業界가 積極 推進하고 있는 새마을 시범 취락이 있다. 농촌기반을 합리적으로 개량하고 생활과 영농이 편리한 새마을을 창조하여 소득증대화를 기하고 農村의

未來像을 만드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자조·자립·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積極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유방리를 찾아 이모저모를 스케취해 보았다.

『땅이라는 것이 도시 대엿 마지기에 밭 두어 패 기밖에 남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들어 안 터이지마는 그 밖에 채무관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금년 과동 준비와 보릿고개를 넘길 성산이 어떻게 서 있는가도 알고 싶었고 장차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가려는가도 듣는데야 별 뽀족한 수는 없애도 알고만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독실하고 부지런하고,…… 군에서 두 번, 도에서 한번 그를 표창했다는 것만으로도 족히 짐작할 수 있는……이렇듯 노농(老農)이며 거기에다가 술 한 잔 입에 대는 법이 없고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른 채 육십을 넘긴 한 자작농이 불과 십년 동안에 맨 주먹만 쥐고 나 앉았다는 사실은 벼 녀석을 가지고 다섯식구가 만년을 살아야만 한다는 어려운 수학문제와도 비슷했던 것이다.』

李無影 作 「흙의 奴隸」에서

1940년대 日帝의 농민 수탈로 피폐된 농촌은 한 落鄕한 인테리에 의하여 어려운 수학문제와 같이 비쳐진다. 이러한 농촌 문제는 四半世紀가 지나는 동안에도 전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는 않았었다. 농촌은 점점 더 영세화되고 그나

마 농촌 지주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민족자본은 해방과 함께 찾아온 농지개혁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사변 이후에는 외국으로부터 대량의 양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한 「農者天下之大本」의 國家로 전락하기에 이르게 된다.

京畿道龍仁郡 柳防 1里 防禦골도 이러한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의 하나였음은 두 말할 나위 없었다.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강재원 (43)씨는 이 마을이 일제시부터 한동안 「7전달 8갈〇가 논다」는 동리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둑판 같이 정리된 農地에는 스프링 클러 시설까지 갖춰

지난 10여년간 마을의 별판을 남으로부터 북으로 가로 지르는 하천은 해마다 이는 홍수의 물결에 따라 동으로 서로 이동되어 이제는 옛날의 하상으로부터 서편으로 100여 m나 옮겨져 논·밭을 좁먹고 흐르고 있었으며 이곳 地名이 말해 주듯 아마도 李朝 전기쯤에는 水災를 다스리기 위해서 쌓았을 築臺와 심었던 버드나무들은 자취를 찾아 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임진란 때에는 적의 화살을 막아주었다던 그 울창한 버드나

무 숲은 어디쯤 있었는지——. 10여년 전만 해도 물이 마르지 않던 이 하천이 이제 몇주간의 가뭄에도 하상을 들어내 놓는 상태에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龍仁읍내에서 광주——서울로 뻗어가는 지방도로는 먼지를 날리며 울퉁대고 꼬불꼬불한 한국의 전통적인 도로를 연상시키는 것이 昨年 11月 17日 새마을 기공식을 올리기 전까지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길 한쪽 귀퉁이 과히 높지 않은 야산 밑에 59戶의 초가집 들은, 양지 바른 봄볕에 나와 즐고 있는 年老한 할머니의 모습과도 같이 추한 환경을 하고 질서 없이 어울려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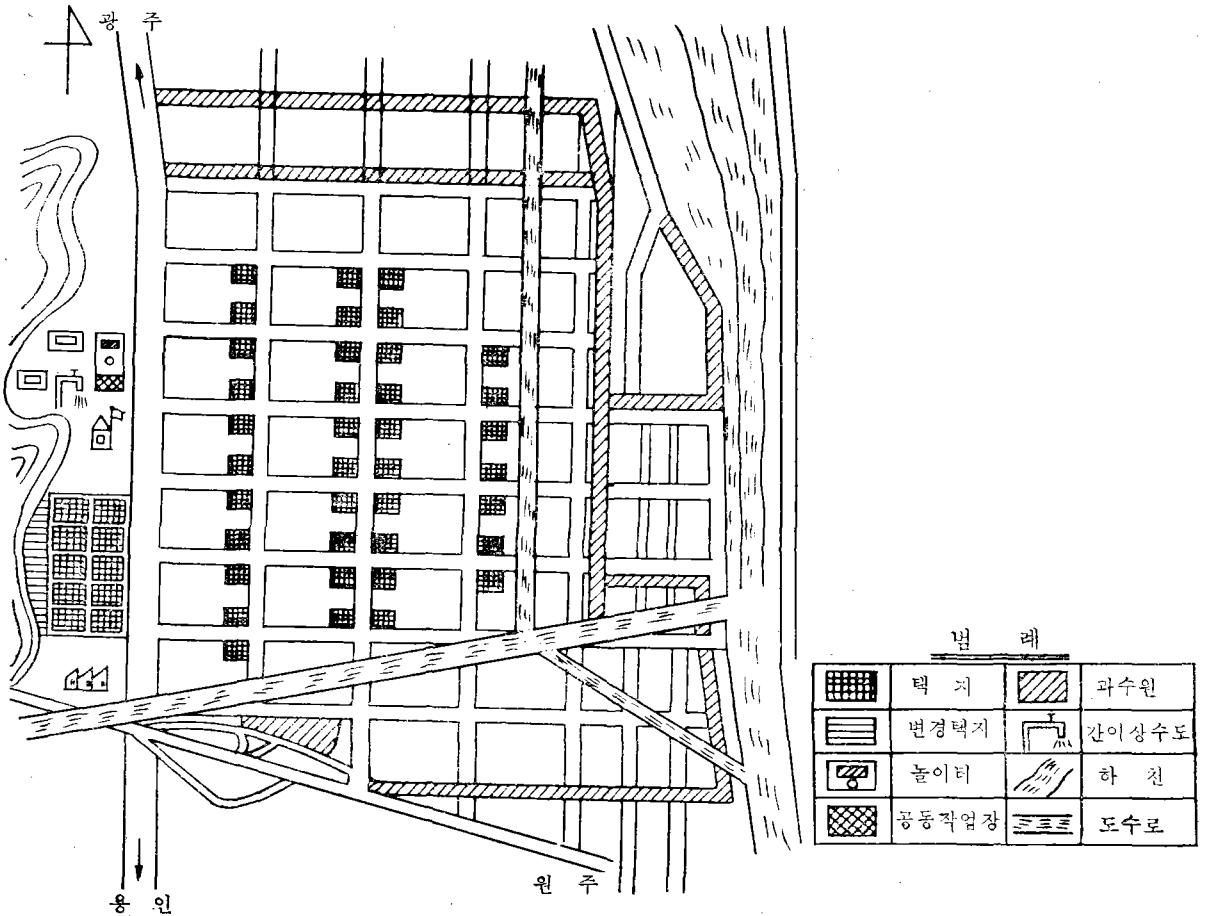
훌륭한 하천을 옆에 두고도 가뭄에는 가물어서 흉년이고 장마가 드는 해는 물이 넘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흉년은 거의 예년

의 행사 모양 되었다.

이러한 防禦골에 커다란 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경부고속도의 신갈 인터체인지에서 갈라져 나온 영동 고속도로가 산을 뚫고 마을 앞을 가로질러 동으로 길게 뻗어가게 되었고 다행히도 용인 진입을 위한 인터체인지가 마을 앞에 생기게 되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도로를 통해 많은 식견과 풍물과 발전상을 듣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농부는 약 14년전부터 집에서 수공업으로 소규모로 경영하던 낚시대 공장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확장하고 마을의 젊고 유능한 유희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기의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 소득은 농사보다 월등하게 높아졌고 그 혜택은 여기에 참여하는 전 가호에 반이상이나 돌아갔다.

다른 농부는 고등 소재 재배를 위한 비닐 하우스의 영농법을 소규모로 도입하였으며 각 가



<시범 취락 건설 계획도>

호마다 양계와 양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이 마을은 1시간이면 서울에 달 수 있는 서울 생활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급히 오지는 않았다. 농민들의 자본과 영농 기술 수준이 그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개선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30일 양회업계는 한국양회 주식회사의 제 13 차 이사회의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이 마을을 선정·지원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용인군청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지원에 힘 입어 동부락을 「시범취락」으로 건설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지난해 11월 17일에는 현장에서 간략한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防築골—— 지형상으로는 용인군 내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지(輿地)나 다름 없던 이마을은 농가 53호에 비농가 6호로 구성된 59 가구, 339 명이 모여사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작은 부락이다. 그러나 이러한 59 가구의 성씨별 구성을 보면 골고루 분포를 보여 박씨가 11 가구, 이씨가 9 가구 김씨가 7 가구, 최씨가 5 가구, 허씨·남씨가 각각 4 가구 기타 성씨가 19 가구로 전통적인 씨족사회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농경지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면적이 83.63ha에 경지가 59.6%인 49.9ha, 임야가 18%인 15.0ha, 기타가 22.4%인 18.73ha로 이루어졌으며 경지중 논은 69.7%인 34.8ha, 밭은 30.3%인 15.1ha에 이르고 있다. 이중 논의 71.2%인 24.8ha은 안전담으로 되어 있으나 8ha는 천수답이며 이 이외에 불안전담도 2ha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농지를 농가수로 나누어 보면 호당 농지면적은 0.94ha에 불과하게 되어 도의 평균인 1.1ha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형편이다. 1헥타알을 약 1정보로 본다면 1가호당 농경지는 평균 2천 8백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호당 약 6명의 식구가 이곳에 매달려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나마 농경지의 약 3할은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후해서 주민들의 소유로부터 서울

사람들의 소유로 바뀌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한 가호의 농지는 주민의 소유를 떠난 땅을 빼다면 2천평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며 앞으로 서울 사람의 땅은 대경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땅 값이 뛰고 재빠른 서울 사람들의 구매는 농민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안겨 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내지 40년이라는 오래된 집이나마 자가 소유자는 56 가구나 되며 셋방이 3 가구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衣食住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농촌의 일반적인 현상보다 결코 낙후되지는 않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주민의 문화생활의 최초 지표가 될 수 있는 교육 수준을 볼 것 같으면 대졸이 2, 고졸이 11, 중졸이 20, 국졸이 79에 불과하며 230명은 거의 무학에 가까운 실정이다. 학력으로 보는 한 우리나라의 문맹 구조보다 크게 落後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마을의 71년도 1년간 농산물 및 낚싯대 생산량과 축산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농 산 물 | | | 축 산 물 | | | | 제조업 | |
|----------------------|----------------------|--------------------|---------|---------|---------|----------|-------------|-----|
| 미 | 맥 | 서류 | 한우 | 젓소 | 돼지 | 닭 | 개 | 낚싯대 |
| $\frac{M}{T}$ 122 | $\frac{M}{T}$ 255 | $\frac{M}{T}$ 8 | 두 16 | 두 33 | 수 59 | 마리 29 | 개 13,000 | |

이러한 생산현황으로 보아 이들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 예상된다. 특징이 있다면 노는 손을 이용한 낚싯대 제조로 부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이에 의한 수입이 다른 마을의 주민보다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일인당 연간 소득은 약 2백弗 미만이었을 것으로밖에 추산되지 못한다.

2천여평의 양어장 시설 마련 낚싯대 새마을 공장도 세워

여기에 새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70년도부터 서서히 새마을 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의 관심이 모여지기 시작해 왔으나 그렇게 실감을 느끼지는 못해 왔다. 군이나 면에서의 행정력도 이 마



시범취락 건설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는 鄭英基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

을에까지 세세하게 미쳐오지는 못했었다. 이러한 계재에 시멘트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은 339명의 마을 주민들을 고무시키기에 적절한 조치가 되었다. 71년도의 시멘트 업계는 그 전해보다도 열악해진 경영상의 자체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鄭英基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은 새마을 시범취락기공식에서 이해가 다른 8개의 업체가 단합하여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모든 건설의 기초가 되는 시멘트 업계가 새마을 정신과 10월 유신 정신을 받들어 이곳 주민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주민들이 진전해가는 80년대의 우리나라 농촌상을 앞질러 건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러한 시범취락은 전농민의 귀감이 되어 정부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공식과 함께 겨울이 바로 왔다. 땅은 얼고 바람은 차다. 주민들이 바로 사업을 벌이기까지는 힘든 환경이었다. 그렇다고 이러

한 농한기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한 겨울에 마을 주민들은 하천변에 비닐 하우스를 짓고 시멘트 벽돌, 브로크를 적고 기와를 만들어 냈다. 해빙이 되기 전까지는 이미 59호가 필요로 하는 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월이 되며 본격적으로 마을 안길 끈게 펴기, 경지정리, 하천정리, 제방쌓기 등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3월이 되며 59戶中 51戶의 住宅에 대한 신축 사업과 8戶의 개축사업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4월이 되며 45평의 벽돌, 철근콘크리트造 마을회관 건립이 시작되었다. 5월이 되며 경지정리·하천정리가 끝남과 동시에 2,311평의 양어장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46평의 시멘트 브로크造의 낚싯대 공장이 새마을 공장으로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사들은 복공 1인, 기와공 1인 등 기술인부 몇명을 제외하고는 전주민이 참여하여 이룩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사가 이미 5月末까지는 80% 이상이 진척되어 거의 모든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다. 마을 인구중 14세이상 59세

까지의 노동가용 인원은 207명에 불과하며 여기에서 또한 여자 인원을 제외한다면 결코 많은 노동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몇 개월 동안에 이들 주민은 단합된 힘을 집중하여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배 이상의 일을 완성해 놓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생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오게 됨과 동시에 농번기가 찾아왔다. 주민들은 조금도 편하게 쉴 날이 없었다. 붓물을 대고 정리된 경지에 협업화된 노동력을 동원하여 모내기를 추진하고 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어느 해보다도 보람찬 한해의 시작이 아닐 수 없었다.

바둑판 같이 정리된 논과 밭에는 도수로를 통해 농수가 공급되고 있었으며 구획된 정리에 따라 900평 단위의 불럭 마다의 코너에 건설된 18평 수준의 아담한 주택과 그 외의 창고, 축사들 포함한 부속 건물들은 널찍한 평야에 그림같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간에 이룩된 택지정리는 4,750평에 이르며, 지방도로 확장은 2,749m, 마을안 도로의 개설은 2,316m, 기타 마을 회관 앞의 운동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용지 확보가 920평에 이르고 있다.

농촌의 미래상을 보인 문화주택 콘크리트造 새마을 회관도 세워

防築골에 거주하고 있는 柳防 1里 里長인 崔相福(50)씨는 15代째 이 마을에서 살아오는 가장 오래된 주민으로서 현재 7식구가 논 11마지기과 밭 900평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다. 崔씨는 「이곳이 지질이 비교적 박토이기 때문에 남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못하고 있으나 이 마을에선 중류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범취락으로 이 마을이 선정되어 많은 도움을 입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게 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회업체와 군청의 지원 및 자조 노동력으로 홀

륭한 집을 짓게 되었으며 집 전면에는 타일까지 붙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주위 사람들의 덕으로 이룩되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을 좀 크게 짓고 원주택의 문짝을 이중창으로 하며 타일을 붙이고 쟁을 달다 보니 개인 경비가 30여만원쯤 들게 되었다. 재원은 헌집의 화목 판매로 마련한 14만원을 갖고 쓰다가 모자라 20만원에 소를 팔았다. 금년에는 힘 들어도 내년에는 다시 자력으로 소를 꼭 사겠다」고 장담하고 있었다.

崔씨의 가족은 7식구로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하나씩 재학중에 있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딸이 낚싯대 공장에 취업하여 한달에 1만원 내지 1만 5천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큰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돕다 군에 가 있다면서 제대하고 나와 취업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부유한 층에 속하는 이대선씨(46)는 현재 20평의 주택 전면에서 서울에서 靑요지 벽돌을 주문해다 붙일 정도로 고급 주택을 건설하였다. 10년후 농가의 한 모형을 앞당겨 농민들에게 제시해 주고 싶어 힘에 겨웠으나 이러한 집을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층의 하나인 李有興씨(64세)는 마을에서 지어주는 그대로의 집을 완공하였다. 마을에서는 브록와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고 시멘트로 깨끗하게 발라 주었다. 집의 넓이나 구조는 다른 집과 똑 같았다. 李씨의 경우 90세의 老母 한분과 동갑인 妻 등 모두 3식구가 300평의 밭농사와 잡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집 옆에 대토로 받은 이 적은 밭이지만 이곳에 고등 소재 비닐 하우스를 짓고 남다른 노력을 하겠다고 자신을 보여 주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6戶는 낚싯대 공장에 취업하고 있으며 기타 농업노동별리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양어장 등이 생기고 앞으로 양돈장·양계장 등이 크게 생기게 되면 오히려 손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한 농민은 말해 주고 있다.

이 마을에서 연세가 많은 70세 嚴노파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면 이제

새마을 회관이 준공되면 그곳에서 경노당을 운영하게 되고 텔레비전까지 갖다가 논다니 꿈만 같다고 어린이와 같이 좋아하였다.

龍仁중고등학교와 泰成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단의 이 마을 중학생들은 마침 수업을 끝내고 오다가 말을 전해주었다. 하학후에도 마을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좀 고되기는 하지만 학교에 가면 학우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깥어가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묻는데 이럴 때면 그 전날의 피로가 가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지더라는 것이다.

시범취락 추진 위원장 강재원씨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의외로 뿌리 깊은 주민들의 보수성에 놀랐으며 새 사업을 할 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반대의 의견과 보수성은 문제 해결에 관한 지침이 되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며 변경돼가는 마을 모습을 보고 보수적이던 분들도 차차 반응이 달라지더라고 그간의 고충을 얘기하였다.

군청의 유재희(42) 새마을 과장은 방대한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차분한 인상을 못 주기 쉬우며 또한 주민들이 과대한 지원에 대해 마음 자세를 차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이들을 깨우치고 독려해 주기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하면서 환경조성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앞으로 소득증대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어려운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민의 자조·자립·협동 정신에 시멘트업계의 지원이 큰 힘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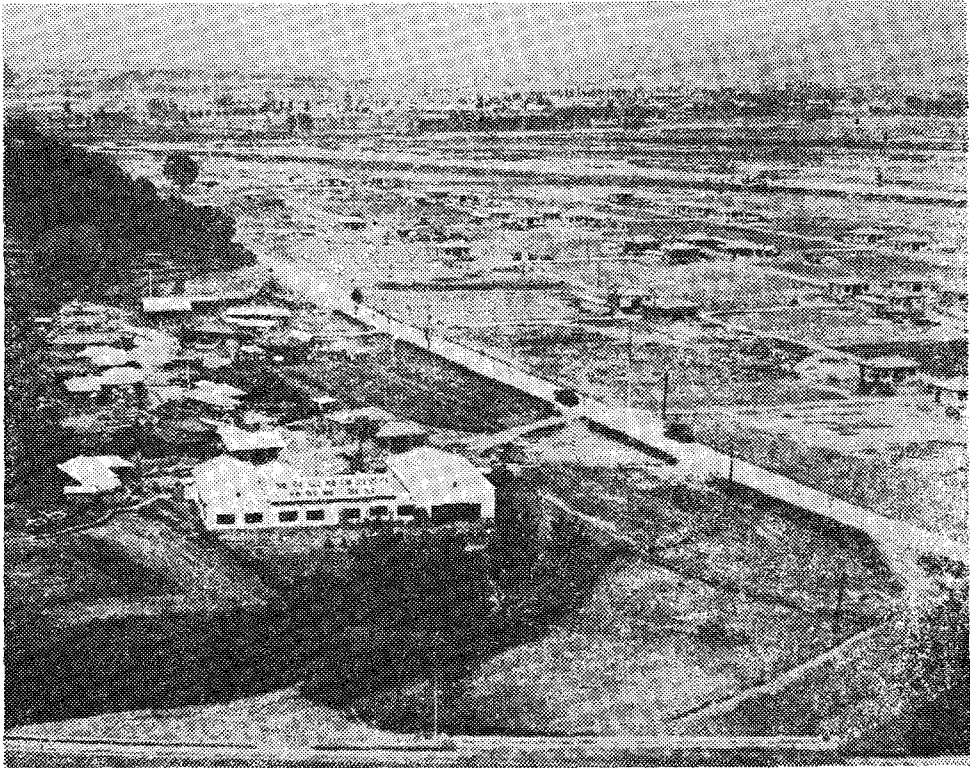
앞으로 이 마을은 금년도 전반기 중에 앞서 말한 모든 사업을 끝내고 간이 상수도를 시설하며 스프링 쿨러를 완성하고 사료 분쇄기 1조를 설치함과 동시에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유실수로 나머지 가로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수도를 위해서는 마을 옆의 동산에 2기의 물탱크를 만드는 등 나머지 사업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을 농사일을 진행시키면서 병행하여 이룩할 것이라고 한다. 가을부터는 56동의 비닐 하우스를 건설하여 겨울에도 유휴기 없는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금년도 소득증대사업중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원예사업은 190 개반을 편성하여 총 7천 8백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려 3천 5백 70여만원의 순수익과 기타 노무비, 자가노력비를 거두어 들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료를 전라도 일대에서 구매하여 이곳에서 제조하는 낙식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금년도에 1만5천여개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중 약 7할은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의 수출목표 2만달러는 5월말 현재 벌써 거의 달성했으며 3만달러 수출도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득증대사업(74년 기준)

| 사업명 | 사업량 | 생산량 | | 조수익(원) | | 경영비(원) | | 순이익(원) |
|----------|---------|----------|------------|--------|-------------|--------|-------------|------------|
| | | 단생산량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고등원예 | 370 반 | 2,570 kg | 950,900 kg | 160 | 152,144,000 | 87 | 82,728,300 | 69,415,700 |
| 양어장(양어) | 2,311 평 | 5 首 | 21,800 首 | 200 | 4,360,000 | 13 | 283,400 | 4,076,600 |
| 과수원 | 528 주 | 94 kg | 49,632 kg | 69.59 | 3,453,890 | 30.25 | 1,501,368 | 1,952,522 |
| 미곡생산 | 107.9 반 | 320 kg | 34,528 kg | 130 | 4,488,640 | 64.18 | 2,216,007 | 2,272,633 |
| 양계 | 1,000 수 | 200 個 | 200,000 個 | 13 | 2,600,000 | 3.25 | 650,000 | 1,950,000 |
| 제조업(낙식대) | 1 개소 | 15,400 個 | 15,400 個 | 800 | 12,320,000 | 700 | 10,780,000 | 1,540,000 |
| 양돈 | 59 호 | 2 頭 | 118 頭 | 25,500 | 3,009,000 | 12,000 | 141,600 | 2,867,400 |
| 양묘(포푸라) | 3,050 평 | 30 本 | 91,500 本 | 15.80 | 1,445,700 | 10.30 | 933,300 | 512,400 |
| 비육우 | 59 호 | 2 頭 | 118 頭 | 84,000 | 9,912,000 | 54,000 | 6,372,000 | 3,540,000 |
| 합계 | | | | | 193,733,230 | | 105,605,975 | 88,127,255 |



이들 낚싯대는 상공부지정 새마을 공장 제 116호로 설립된 龍作낚싯대工業社에서 제조되고 있는 바 현재의 종업원은 약 35명 정도며 내년도에는 현재의 시설규모에 맞추어 1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낚싯대 제조는 수공 노동에 주로의존하는 일로서 판매가의 반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실정이며 전습공이 약 5천원, 3개월쯤 지나면 1만원 수준이 되고 숙련공은 2만원내지 3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은 비농업주민을 흡수하여 숙련 공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숙련공이 되면 자기집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농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家內 수공업 형태로부터 도급화 내지 協業化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금년 들어 日本・美國 등지의 주문 쇄도로 미쳐 생산을 못해 내는 형편이며 수출가격은 저질이 22~80¢, 고급품이 3~5\$이라고 하는 바 저질품의 생산은 차츰 중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년도 이 마을의 조수익 9천6백만원중 고등

원에 및 낚싯대 제조가 9천만원이나 되며 미곡 생산은 450만원, 양계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은 주민 1인당 연간 301\$의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금년도 후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여타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주민 1인당 연간소득을 630\$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대는 집종의 효과로 가능해질 것이며 75년 및 76년도에는 이 이상의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76년의 소득을 761\$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세부계획 중 74년도분을 보면 앞표와 같다.

환경조성후 소득증대사업 실시해 주곡생산 위주의 영농방법 벗어나

즉 계획에 의하면 고등원예가 190개반으로부터 370반으로 늘어나게 되며 잉어를 중심으로 양어장은 부화·치어사육으로부터 모든 과정을

포함하게 되며 소규모나마 과수원을 운영하게 되고 수출수요를 중심으로 낚시대 제조를 크게 늘리고 양계·양돈을 확대하며 비육우를 1가호 1두로 확대하고 포푸라 등 묘포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영농방법의 다각화는 주곡산출에만 의존하던 영세한 농업규모를 크게 탈출하게 할 것인 바 미곡생산에 의한 조수익은 총수익의 2%에 불과하게 되어 본격적인 농업혁명을 가져오게 된다.

과연 이러한 소득 수준이 앞으로 1년반 후에는 이루어질 것인지? 이러한 의문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시범취락의 주민들도 회의하고 있는 사실일는지 모른다. 격변기에 있어서의 농업 유형의 본질적인 변화와 소득의 倍加라는 것이 아직은 아무에게도 크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상에 대한 회의는 앞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노력할 것이며 이 노력에 발맞추어 행정지원과 업계의 지원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열의가 숙어지지 않는 한 그들 생활의 개선과 소득의 증대는 바로 연결되어 질 것이 틀림 없는 사실이다.

마을회관에 안락한 의자를 마련하고 공동의 마을 일을 토론하면서 창너머 어린이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뛰어 놀 그들의 2세를 흐뭇한 심정으로 내다볼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협업화 농촌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시련기에 있어서의 주민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의 총의(總意)는 단합되고 있으며 모든 역량은 집중되고 있다. 「7건달 8갈〇가 논다」는 마을이 「7전 8기」의 역경 끝에 새로운 농촌으로 재기한다는 것은 결코 먼 훗날의 얘기일 수 만은 없다. 이러한 새농촌을 무대로 소설이 아닌 실생활이 엮어지고 적어도 우리 세대의 후손들은 이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더 먼 훗날 우리의 세대가 연노(年老)했을 때 이 마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복된 농촌을 건설해 놓을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오욕된 선조의 유산을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아 땀흘려 일하고 또 일했다고 땀땀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보람찬 사회건설에 참여했던 70년대의 시멘트업계의 발자취도 그들 후손을 통해 길이 구절되어 갈 것이다. (Y)

♣ 近 着 外 國 圖 書 ♣

● MODERN ASIA, January-February 1973

- Japan : Linking the islands
- Thailand : Woman engineer heads waterworks* department
- Taiwan : Fast mail service
- Micronesia : Pacific's financial hub
- Turn know-how into money
- Licensing can increase your profits
- Motel management needs skill
- Have you got what it takes for this job?
- Problems with a jealous worker
- Test your own knowledge of psychology
- Marine insurance in the container age

- The big ships have brought many changes
- A U.S. exporter views the Far East
- How American business can expand in Asia

● MODERN ASIA, March 1973

- Indonesia : Foundations for cement
- India : Buses come before cars
- Korea : How banking works
- Want to sell some old debts?
- Factoring— a new financial technique
- Getting out of town
- What the Japanese may soon be doing
- Roger's promotion
- Sharpen your management skills